



유머는 누가 만들었고 인간은 왜 웃는가

‘웃음’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상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보라”고 하거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살아남은 생명체”를 묻는 질문에 주저 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개미’란 소설을 읽은 사람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새책이 나왔다. 이 말만으로도 설레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기대하라. 이번엔 유머다. 그의 장편소설 ‘웃음’(1·2)은 우스갯소리는 누가 만들고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은 왜 웃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회적으로 답하는 고풍적 유머집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 세계에 2000만부의 책을 팔아치운 그의 무한한 상상력은 이번 소설에도 그 빛을 발한다.

이야기는 한 코미디언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다 리우스가 변사체로 발견되고, 이 죽음을 타살로 여긴 두 기자가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이 이야기



의 큰 축이다. 이 과정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유머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비밀리에 퍼뜨리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자들은 다 리우스 죽을 배후에 ‘웃음을 파는’ 범죄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집단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크를 생산해 유포하는 ‘유머기사단’이란 점도 밝혀낸다.

아리스토텔레스, 에라스무스, 찰리 채플린도 모두 ‘유머기사단’의 일원이며, 프리메이슨과 성전 기사단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유머와 역사를 연결하는 패러디가 돋보인다. 이들이 비밀리에 유포하는 유머는 웃음을 멈출 수 없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조크이며, 그 역사도 수천 년에 이른다.

다소 황당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머를 만들어 내는 비밀결사대는 이사벨라 스페인 여왕의 의사에도 개입했고, 잔 다르크도 이 조직의

농담을 굳건히 믿다 불쌍하게 죽음을 맞게 됐다 는 식이다.

또 소설에는 ‘유머 기사단’이 기록했다는 공식 역사서 ‘유머역사대전’이 등장한다. 소설 속 세계사는 일종의 ‘세계 유머사’로 웃을 갈아입고, 수많은 풍자를 만들어낸다.

저자는 이번 작품을 쓰면서 독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소설 속에 인용되는 조크 중 상당수는 베르베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 것들이다. 독자들은 또 작가의 새 소설을 기다리는 동시에 수천 건의 조크를 응모했다.

소설 속 100여개의 유머는 글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미 유명한 유머도 등장한다.

한편 베르베르는 이번 책 출간에 앞서 지난 1월 광주일보와 프랑스 현지에서 갖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나라이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왔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권리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열린책들·1만1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에세이부터 픽션까지... 30년 문학 집대성

‘잡문집’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스물 아홉 뒤늦은 나이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데뷔 후 30여년간 많은 소설을 써온 무라카미 하루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국작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노르웨이의 숲’을 비롯해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을 수상한 ‘해변의 카프카’를 거쳐 최근 ‘1Q84’로 건재를 과시해온 그가 ‘잡문집’을 펴냈다.

이런 저런 목적으로 이런 저런 저런 지면에 쓰여 온 에세이를 비롯해 여러 책들의 선문과 해설, 질문과 대답, 인사말, 짧은 픽션까지 책 제목 그대로 ‘잡다한 글’들을 모두 모은 책이다.

진지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은 짧은 인사말과 수상소감 등은 읽는 재미가 쏠쏠하며 재즈에 일가견이 있는 그답게 ‘음악에 관하여’라는 카테고리에도 짐 모리슨, 빌리 홀리데이 등의 이야기도 재미나게 읽힌다.



또 스콧 피츠제럴드와 레이먼드 카버의 열혈팬으로 이들의 작품을 일본어로 옮겼던 하루키가 전하는 번역에 관한 글과 소설을 쓴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찰들도 눈길을 끈다. ‘사랑 없는 시계’, ‘덤블 속 들쥐’ 등 미 발표 픽션도 실려 있다. 70여편의 글에 실린, 발표했을 당시의 정황과 현재의 느낌을 담은 짧은 글도 인상적이다.

〈비치·1만4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절하고 싶다’ ‘꽃뿔대’

함민복 지음

그의 책을 넘기면 외로움이 외곽 쏟아져 내릴 것 같다. 강화도 바닷가에 살면서 시인이라는 슬픈 운명을 묵묵히 짊어온 함민복이 시 에세이 ‘절하고 싶다’와 시화집 ‘꽃뿔대’를 나란히 냈다.

‘절하고 싶다’는 시인의 삶에 좌표가 된 시 77편과 함께 짙은 감성풍을 담았다. 함민복을 맑은 영혼의 시인으로 키워낸 이정표 같은 시편들을 소개한다. 책 제목은 ‘절하고 싶다/저녁 연기/자욱한 먼 마을’이라는 고은 시인의 3행체 시 ‘저녁무렵’에서 따왔다.

이 외에도 백석, 박목월, 구상, 정현중, 이성복, 최승호 등 근현대의 국내 시인부터 고려 문인 이규보, 조선 시인 이달, 중국 시인 두보, 인도 시인 타고르까지 시



간과 공간을 넘나들고 있다.

〈사문년집·1만원〉

‘꽃뿔대’는 시와 짧은 산문에 황중환 씨가 그린 그림을 함께 엮은 책이다. 시인의 기존 시 가운데 그림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작품이 뽑혔고 일부는 이번 책의 분위기에 맞게 새롭게 집필했다.

문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진 것들 대신, 우리의 마음이라도 꽃줄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꽃뿔대’라는 시어를 만들어 냈다. 함민복의 잔잔한 시와 황중환 씨의 예뻐이 넘나들 그림이 어우러져 묘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대상·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생물학에 바친 아버지의 삶, 아들의 기록

‘아버지의 오래된 숲’

베르트 하인리히 지음

뱀사벌 연구에 미친 한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자식을 대학에 보낼 돈 한 푼 없으면서도, 막노동물 해서 번 돈을 뱀사벌 연구에 쏟아부었다. 그의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아버지는 평생 1500여 종의 뱀사벌을 새로 발견해 이름을 지어줬지만 보통사람들은 그런 아버지의 노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열정은 닦는 법, 아버지를 중요하면서도 아들은 훗날 동식물학자가 돼 있었다.

유명 동식물학자인 베르트 하인리히의 ‘아버지의 오래된 숲’은 열정에 대한 책이다. 저자와 그의 아버지 게르트 하인리히가 곤충과 생물학에 바친 노력을 담고 있다.



2차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난 저자는 평생 뱀사벌을 쫓아다니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동식물의 신비로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들의 가족사는 20세기 초, 격변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생물학의 역사와 닮아 있다.

또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식적으로 발버둥친 아들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버지와 엮어갈 수 밖에 없었던 아들은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 더욱 논리정연하게 가면서 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슈·2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표·성냥갑·만화책... 추억의 조각들

‘컬렉터’

이우일 지음

아마도 무언가를 ‘수집’해 본 기억들이 있을 거다. 우표나 성냥갑, 장난감 뭐 이런 것들. 만화가 이우일은 실로 다양한 것들을 모은다. 그림책, 프라모델, 액션 피겨, 장난감, 만화책, 그림, 공구 등... 어떤 것은 본인의 표현처럼 진짜 쓸모 없고 자질구레한 것들이다.

그가 펴낸 ‘컬렉터’는 부제처럼 ‘한 웃기는 만화가의 즐거운 잉여 수집생활’을 유쾌하게 그린 책이다.



어린시절 동생들 것까지 취하며 모으기 시작한 미니카와 마징가 제트 딱지부터 시작해 카메라와 책에 이르기까지 그가 수집해 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나게 펼쳐진다.

글도 글이지만 촘촘히 그린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 등에서는 웃음이 빵 터진다. 왜 이런 ‘잡다한’ 것을 모으는 자문에 ‘추억의 조각들을 모은 것’이었다고 답한다. 〈틀·일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복한 나를 만나러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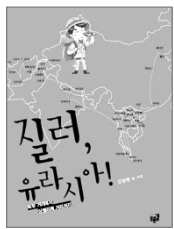
‘질러, 유라시아’

김창현 지음

2006년, 기자가 되고 싶어 취직 공부에 열중하던 대학교 3학년생은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다. 배낭을 메고 5일만에 집을 나섰다. 그렇게 7개월의 유라시아 횡단이 시작됐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지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창현씨가 여행기 ‘질러, 유라시아’를 펴냈다.

여행의 출발은 중국 톈진. 배를 타고 톈진으로 간 후 중국을 종단한 저자는 이어 태국·라오스·베트남·말레이시



아·싱가포르·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넘어갔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여정에서 7개월의 대장정을 마쳤다.

저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의 싸움도 있었지만 황금같은 시간을 뚝 떼어내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일상에서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됐다”고 말한다. 〈푸른길·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대한민국 누들로드=국내 ‘국수 지도’를 그린 책. 지역별로 50여곳의 국수집을 골라, 각 국수 맛의 특징과 유래·문화 등을 풀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산의 밀면, 춘천 막국수 등은 물론이고 고성 메밀국수, 안동 누들국수, 포항 모리국수, 담양 선지국수 등 낯선 국수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지역별로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산간지역 강원도의 음식재료는 메밀·감자·옥수수 등으로 거칠고 소박하다.

〈브레인스토어·1만6800원〉

▲지금은 없는 이야기=만화가 최규석의 우화집. 가난하고 불행한 한 소년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하며 평생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는데도 결국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한 채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 소년의 이야기는 허울뿐인 값싼 위로와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꼬집는다. 이 밖에 주인이 먹이의 양에 차등을 뚝뚝 써 벌여지는 일을 다룬 우화 등도 흥미롭다.

〈사계절·1만3000원〉

▲위험한 권력=17대 국회의원이자 변호사인 최재천이 현행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 권력의 위험성을 지적한 책. 저자는 “모든 권력은 어떤 경우건 견제되어야 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며 “권력의 사유화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 때문에 헌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



한다. 〈유리창·1만5000원〉

▲더 퓨처=해리 텐트, 폴 크루그먼, 조지 프리드먼, 폴 사로, 앨빈 토플러, 새뮤얼 헌팅턴, 니알 퍼거슨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미래 학자들이 10~50년 후를 내다봤다. 이들 전문가의 글을 묶고 분석한 저자들은 중국과 홍콩에서 활약하는 현직 저널리스트 2인이다. 다소 중국적 시각이 엿보이긴 하지만 172명의 석학들로부터 글을 받아 분야별로 묶어내고 분석해 보기도 든 저작을 냈다. 〈예문·1만9000원〉

▲부드러운 상상주=‘냉정과 열정 사이’로 유명한 일본 여성 작가가 음식에 관해 쓴 에세이. 저자는 책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이에 얽힌 추억을 따뜻한 문체로 풀어놓는다. 도넛, 장어구이, 우동, 버터밀크 등의 음식이 40편의 짙은 글로 차례로 소개된다. ‘콜드미트’에는 뒤달까 옛 친구를 만난 듯한 푸근함이 있다. 〈소담·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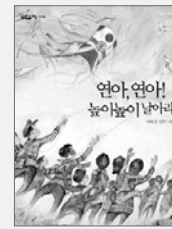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외교 정책 전문가인 한동만씨가 10년간 세계 변화를 이끌 주요 메가트렌드를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미래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해박한 견해가 담겨 있다. 또 우리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것들을 조언한다. 〈한스미디어·1만5000원〉



▲연아, 연아! 높이 높이 날아라=초등학교 교사이자 이호철씨가 어린 적 동네 친구들과 연날리기 하며 놀았던 추억을 구수하고 감칠맛나는 사투리로 맛깔나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하늘 높이 연을 날리고 싶어하는 호철이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고인돌·1만3000원〉

▲바람의 눈을 보았니?=수의학을 전공한 질 리 위스가 쓴 책으로 영국 어린이들이 직접 투표하는 2011 레드하우스 어린이책 수상작이다. 스코틀랜드와 서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암컷 물수리 ‘아이리스’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감성을 지닌 소년 칼롭과 외톨이 전학생 아이오 나가 비밀을 공유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곰터·1만1000원〉

▲거인이 사는 섬=제주도에 전해 내려오는 외눈박이 거인과 영동할멈 이야기를 그렸다. 사람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외눈박이 거인을 보고 영동할멈은 사람들에게 조개와 해산물을 먹이라고 조언한다. 영동할멈의 지혜



로 조개를 잔뜩 먹은 거인은 똥구멍이 막혀 죽게 되고, 이 설화는 지금도 제주도에서 영동할멈이 이어지고 있다. 〈리틀그림책·1만1000원〉

▲찰스 디킨스=‘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데이비드 코퍼필드’ 등을 집필한 찰스 디킨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발간된 그림책이다. 영국의 인기 작가 맥 매닝·브리타 그린스틸 부

부가 뛰어난 관찰력과 사회적 양심을 갖춘 저자의 삶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려냈다. 〈시공주니어·1만원〉

▲위험한 갈매기=얼마전까지 살아 숨쉬던 갯벌 생명들이, 바다가 닫히고 갯벌이 마르면 서 고통 속에서 소리치고 죽어갔던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 갈매기 흰둥이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다에 바위를 쌓고 독을 만들자 갯벌 생명들과 흰둥이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흰둥이는 바다를 파괴한 사람들에게 똥을 날리며, 갯벌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해와나무·8800원〉

어린이 책꽂이